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7장 의복과 십 리(十里)

『산상설교』 상권 제27장, 인쇄 353~36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38~42

> ❓ 누가 날 때리고, 빼앗고, 억지로 일 시키고, 돈 달라고 하면 크리스천은 정말 다 참고 다 내줘야 해?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서 세운 큰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 원칙은 이 어려운 구절을 지성보다 영적 준비로 읽어야 하고, 세부 규칙집이 아니라 “자아에 대하여 죽었는가”를 시험하는 원칙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주님이 드신 네 가지 실례를 차례로 다룬다. 뺨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속옷과 겉옷은 자기 권리를 고집하는 마음을, 오 리와 십 리는 정부의 요구에 분개하는 마음을, 주고 꾸어 줌은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다룬다. 실례마다 그는 문자적·기계적 적용이 낳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막으려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 '경계선'을 긋는다. 그 경계선은 내 일신상의 명예와 이익은 내려놓되 법과 질서, 공의, 약자 보호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런 삶은 거듭나 성령을 받은 새 사람만 살 수 있고, 성결은 집회의 감동이 아니라 세금 내는 태도에서까지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출발점과 첫 실례 — 뺨을 돌려대라: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린다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난해한 구절을 대하는 태도를 짚는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영적인 것이 지력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토론하고 논쟁하려는 기분으로

원칙을 주신다. 그는 개신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의 결의론을 반대하면서도 사소한 일까지 교회가 답을 정해 주기를 바라는 '가톨릭적' 습관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서 첫째 실례인 뺨을 푼다. 주님은 누가 느닷없이 오른뺨을 치는 장면을 그리신다. 이때 즉각 되받아치려는 본능, 곧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다. 그는 두 예화를 든다. 첫째는 콘월의 전도자 빌리 브레이다. 그는 회심 전에 이름난 권투 선수였다. 회심 소식을 들은 한 광산촌 사람이 기회다 싶어 그를 때렸다. 브레이는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 것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네”라고만 말했다. 그 사람은 며칠을 고민하다 회심했다. 둘째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다. 그는 강가에서 배를 부르다가 먼저 타려던 중국인에게 밀쳐져 진흙에 넘어졌다. 그런데도 불평 없이 오히려 그 사람을 배에 태웠고,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모욕은 주먹만이 아니라 혀나 눈초리로도 온다. 주님은 그런 일에 쉽게 화내지 않고 즉각 보복하지 않는 영을 원하신다. 바울은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이 태도를 완벽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경계선을 긋는다. 이 말씀은 법과 질서, 약자 보호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신자는 시민으로서 악이 제재받아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술 취한 사람이나 정신병자가 칠 때 다른 뺨을 내밀라는 해석은 주님의 가르침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고, 그것은 일신상의 모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도록 제재받아야 하며,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가르침이 겨냥하는 것은 “내 명예를 지켜야겠다”며 방어 자세를 취하는 자기 관심이다.

1. 이 구절은 지력보다 영적 준비로 읽는다
2. 규칙 목록이 아닌 '자아에 죽음'의 시험이다
3. 사소한 일까지 답을 정하는 결의론을 경계한다
4. 뺨 =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욕망을 버림
5. 일신상 모욕은 참되 법과 약자 보호는 별개다

> **마태복음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39

첫째 실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 대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로마서 12:19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 보복은 하나님께 맡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린도전서 4:3

남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 바울 — 모욕에 무관심한 영의 모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3:1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신자는 법과 질서에 관심을 가진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영적인 것은 지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 2. 속옷과 겉옷 — 권리만 주장하는 마음, 그리고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둘째 실례는 법정 소송이다.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유대법에서 속옷을 요구하는 고발은 합법이었지만 겉옷은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니 주님은 법이 보장해 주는 권리마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셈이다. 그는 이것을 “의무 대신 권리만 주장하는 경향”을 다루시는 말씀으로 본다. “나는 그것을 가져야 해”라는 태도는 세속 정신이요 자연인(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정신이며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 불의를 당하더라도 법적 권리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그는 이 진술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모순되게 읽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 본문을 맞세운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죄지은 형제를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증인을 데려가고, 교회에 말하라고 하신다. 이것은 그냥 겉옷까지 던져 주라는 말씀과 달라 보인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뺨을 맞으셨을 때 다른 뺨을 대지 않고 항의하셨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조용히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관리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산상설교와 주님 및 사도의 행동이 충돌한다.

1. 겉옷까지 = 법적 권리마저 고집하지 않음
2. 문제는 의무 대신 권리만 내세우는 정신이다
3. 그 정신은 세속 정신, 자연인의 정신이다
4. 성경은 성경으로, 모순되지 않게 해석한다
5. 예수와 바울의 '항의'가 숙제로 남는다

> **마태복음 5:40**
> 둘째 실례: 속옷을 노리는 자에게 겉옷까지
>
>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 **마태복음 18:15-17**
> 잘못한 형제를 단계적으로 권고하라는 명령 — 무조건 내주라는 말과 달라 보임
>
>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요한복음 18:22-23

뺨을 맞으신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항의하심

[22]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사도행전 16:37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관리들의 사과를 요구한 바울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 3. 조화의 열쇠 — 내 명예가 아니라 법의 존엄

로이드 존스는 처음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이 충돌은 조금도 어렵지 않게 풀린다고 말한다. 주님과 바울의 항의는 일신상의 권리를 주장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은 “왜 나를 모욕하느냐”고 하지 않으셨다. 울화통을 터뜨리지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셨다. 다만 “너희는 나를 침으로써 율법을 깨뜨리고 있다”고 율법의 존엄을 일깨우셨다. 바울도 같힌 것 자체에 항의한 것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라고 임명된 관리들이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리고 가둠으로써 스스로 법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일신상의 모욕이나 자기방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공의와 의와 진리가 걸린 문제, 법이 극악하게 무시되는 문제에는 항의해야 한다. 그 근거는 모든 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왕과 정부와 치안관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다. 그는 이 원칙이 지금 중국과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1. 예수와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다
2. 그들은 법을 깨뜨린 자에게 법의 존엄을 일깨웠다
3. 내 일에는 참고, 불의 앞에서는 항의한다
4. 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5. 구별 기준은 '누구를 위한 항의인가'다

요한복음 18:23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여 치느냐” — 성냄이 아닌 율법 수호의 항의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사도행전 16:37

관리들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을 깨닫게 한 바울

>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로마서 13:1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므로 신자는 법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마태복음 5:40

내려놓을 대상은 '일신상의 권리'임을 확인

>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 4. 오 리와 십 리 — 싫은 법과 정부 요구 앞에서

셋째 실례의 배경은 고대의 징발 관습이다. 정부는 짐을 옮길 때 그 자리의 사람을 붙잡아 다음 지점까지 지게 할 권리가 있었다. 특히 정복국이 이 권력을 썼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에 정복당해 있었다. 그래서 일하던 유대인에게 로마 군인이 다가와 "오 리만 지고 가자"고 하는 일이 잦았다. 주님은 그때 요구보다 더, 십 리를 가 주라고 하신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이 정부의 요구에 대한 자연인의 분개를 다룬다고 본다.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내가 왜 따라야 해? 어떻게 빠져나가지?"라는 태도다. 그는 세금을 예로 든다. 우리는 세금을 싫어하지만 기꺼이, 심지어 요구 이상으로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법이 부당해 보이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합법적 권세와 재가를 갖고 있는 한 지켜야 한다.

그는 베드로가 종들에게 착한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한 말을 끌어온다. 그리고 날카로운 예를 든다. 그리스도인 고용주들은 "종들이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며 억지로 일한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소득세와 정부에 대해 바로 그 정신으로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국가의 사환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런 일에 흥분하고, 늘 그 얘기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방해하고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 십 리를 가 준 사람을 보고 군인은 "이 사람은 다르다, 자기 이익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장차 우리가 싫어하는 폭력적 군대에 복종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때도 자연인의 신랄함이 아니라 다른 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명령이 정부 교체나 법 개정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이 필요하면 헌법과 합법적 수단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그 동기도 신앙적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와 의여야 한다.

1. 배경은 로마 군대의 짐 운반 징발이다
2. 싫은 법, 세금에 대한 분개를 정죄하신다
3. 부당해 보여도 합법인 한 기꺼이 지킨다
4. 우리는 모두 국가의 사환이다
5. 법 개정은 합법적으로, 공의를 위해서 한다

> **마태복음 5:41**
> [illegible]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베드로전서 2:18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 주님 가르침의 정신을 보여 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로마서 13:1

권세를 가진 정부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모두 국가의 사환들이기 때문입니다."

📜 5. 구하는 자에게 주라 — '내 것'에 대한 집착

마지막 실례는 주고 꾸어 주는 문제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도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스꽝스러워진다고 말한다. 핵심은 "이건 내 것이다, 그대로 쥐고 있겠다, 내가 손해 보니 남의 필요에는 귀를 막겠다"는 정신이 완전히 그릇되었다는 것이다. 뺨, 옷, 짐, 재물 네 실례 모두에서 주님은 늘 자기만 생각하는 정신을 꾸짖으신다. 그런 다음 그는 '제약'을 단다. 주님은 사기꾼, 직업적 거지, 술꾼을 도우라고 하지 않으셨다. 숙박비라며 돈을 달라는 취한 사람에게 주면 그 돈이 다시 술값이 될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를 격려하는 일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하고, 직업적 거지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형제가 정말 궁핍하고 내가 도울 처지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야 한다. 사도 요한은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마음을 닫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2. 사기꾼, 술꾼, 직업적 거지는 예외다
3. 진짜 궁핍한 형제에겐 손해를 감수하고 돕는다
4.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다
5.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주는 사랑이다

> **마태복음 5:42**
> 넷째 실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
>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 **요한일서 3:17-18**
> 궁핍한 형제에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 "완벽한 해석"
>
>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데살로니가후서 3:10**
>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 돕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근거
>
>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 6. 결론 — 새 사람만 살 수 있는 삶

로이드 존스는 네 실례를 단계적으로 살핀 끝에 하나를 분명히 한다. 이런 삶을 살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세상이나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이론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기를 바랄 수조차 없다. 그는 성결이 집회 때 받는 무엇이 아니라 살아 내야 할 삶이라고 강조한다. 몸을 드리는 헌신에 관한 말씀에는 감동하면서, 싫은 세금이나 성가신 일들에 대한 태도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네 실례 모두 자아에 대한

1. 이 삶은 새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
2. 세상에 주는 사회 이론이 아니다
3. 거듭남과 성령 없이는 소망할 수 없다
4. 성결은 집회의 감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다
5. 네 실례 모두 자아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요한복음 3:3

"거듭나지 아니하면" — 이 삶의 전제가 중생임을 뒷받침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39-42

네 실례 전체가 한 원칙, 곧 자아에 대한 죽음을 가리킴

>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로마서 13:1

세금처럼 싫은 일에 대한 태도까지 성결의 영역임을 상기시킴

>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결은 집회 때에나 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 용어

결의론(casuistry)
구체적인 상황마다 무엇이 옳은지 세부 규칙으로 판정해 주는 방식으로, 로마 가톨릭 도덕신학의 전통이다.

자아에 대하여 죽음
내 명예, 권리, 이익을 지키려는 자기중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 장 네 실례의 공통 원칙이다.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않아 본능과 자기 이익대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징발
정부나 군대가 사람이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다 쓰는 것으로, '오 리를 억지로 가게 함'의 배경이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함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모순되지 않게,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읽는 원칙이다.

치안관(관리)
법을 집행하도록 세워진 공직자로, 그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중생(거듭남)
성령께서 사람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로, 이 삶의 전제다.

성결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집회에서 한 번 받는 체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 점검 질문

✅ 이 장의 결론

- 뺨, 옷, 오 리, 꾸어 줌은 모두 한 가지, 곧 자아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 신자는 일신상의 모욕, 권리, 이익에는 죽되 법과 질서, 공의, 약자 보호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다.
- 구절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 원칙을 붙든다.
- 싫은 법과 세금 앞에서도 분개 대신 십 리를 가는 다른 영을 보인다.
- 이 삶은 거듭나 성령을 받은 새 사람만 살 수 있으며, 성결은 집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산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